보도시점 :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3. 3. 29.(수)

무정차 통과는 특수상황을 대비한 여러 대안 중 하나이며, 전혀 확정된 바 없습니다

< 보도 내용 (머니투데이, 3.29) >

◈ 지하철 혼잡하면 '무정차' 통과…"출근해야 하는데 못 내리나요?"

ㅇ "출퇴근 시간대에 무정차 통과를 할 경우, 제 때 승하차 하지 못한다는 시민들의 우려"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**철도역사·열차 내 혼잡도**를 **안전하게 관리**하기 위해 **역사와 열차의 혼잡도**, **승객의 이동 흐름**(승·하차 인원 비율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**혼잡상황에 있어 안전**하면서도 **국민의 불편이 최소화**될 수 있는 **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**할 계획이며,

ㅇ 이용승객, 전문가, 철도운영기관, 연구기관 등의 심도 있는 연구를 거쳐 "**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**"과 "**도시철도 대형사고 위기 대응 표준·실무 메뉴얼**"을 개선(~'23.上)할 계획입니다.

□ 참고로, 출퇴근 시간대에 혼잡도가 혼잡에서 심각 단계일 경우, **무조건 무정차 통과를 하는 것은 아니며**, 철도운영기관이 승객의 이동 흐름 등을 고려하여 **무정차 통과여부를 검토**하도록 하는 것입니다.

ㅇ **일상적인 출퇴근 시간대**에는 혼잡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, **안전요원을 배치**하고 **안전사고 취약점**을 **도출·개선**하는 등 **평상시 안전관리**를 **강화**하는 방안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.

담당 부서	철도안전정책관실 철도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	조성균 (044-201-4600)
		담당자	사무관	임연우 (044-201-4616)
		담당자	사무관	조상원 (044-201-4601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